

2020년 8월 9일 “창세기의 사람들(5) 노아와 세상”(창 6:1-10)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심판을 말하면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징벌을 내려 파멸의 상태로 빠트리는 것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심판에 관해 부분적으로 이해로서 이런만 고수하면 전체적인 의미를 완전히 놓칠 수 있습니다.

심판은 겉으로 파멸이지만 ‘새롭게 함’의 목적을 갖는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도 자비와 사랑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핵심임을 꼭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은 노아 시대의 심판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과 세상에 대한 시각을 다듬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1] 심판의 목적: 새롭게 하심

창조의 역방향의 시작은, 첫째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쫓는 외모지상주의에 빠졌기 때문입니다(3 절). 셋으로부터 내려오는 경건계열의 주님을 향한 경외심이 허물어졌고 영적으로 혼돈을 경험하는 시대였습니다.

두번째로, 네피림 종족의 등장입니다(4 절). 이들은 용사들이고 명성이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힘센 자들이며 힘에 의존하는 자들입니다. 힘을 우상시하여 힘으로 장악하려고 하면 그 사회는 폭력적이 되며, 부패와 살인이 난무해집니다. 그래서 위축된 사람과 두려운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창조 세계가 추구하는 질서와 조화가 깨어지게 됩니다.

이 시대에 대해 하나님은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근심하셨습니다(6 절). 하나님의 한탄과 근심을 공감하는 것은 성경 메시지를 이해하는 기본입니다. 하나님은 그 세상에 대해 강수를 두시는데, 당신의 창조 세계를 아예 허물어 버리십니다. 그래서 무질서의 혼돈의 상태로 돌리십니다(심판).

그러나 심판의 목적은 세상과 인간을 무용하게 만드는 파멸이 아니고,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시기 위함입니다. 마치, 창조 전, 창 1:2 ‘땅 위에 혼돈과 공허, 깊음 위에 어둠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심으로써 창조를 이루시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영적 가치관이 함몰되고, 힘과 폭력이 가득한 세상을 제거하여, 창조주를 향한 경외심을 회복한 인간을 통해 새롭게 하시겠다는 목적을 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노아를 부르셨습니다.

[2] 새창조의 일꾼 - 의인 노아

8-9 절 -노아는 은혜를 입었고, 의인이고 완전한 자이며 또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이 말의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세상이 자기들 가치와 방식으로 유혹하고 설득해도 노아는 안위와 편리를 뒤로하고 주님 마음을 품고 산 사람이었습니다. 도덕적, 법적 의를 지키는 것을 넘어 자기 인생을 하나님의 성품과 뜻에 맡기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한 근본적인 내적 자질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아픔과 근심에 깊이 공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공감하는 마음을 가진 자가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9 절 - 의인은 관계 속에서 상대에 대한 신의와 믿음, 그리고 관계를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신실하게 감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노아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어진 소명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것은 길고 힘든 방주 제작의 과정이었으며, 그는 이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그 결과 모든 생명과 함께 방주 안에서 에덴에서 아담이 받았던 수업을 특별히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방식과 길을 걸으며 노아는 폭력과 부패가 가득한 세상에서 참 삶을 회복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것을 배우기에 너무 멀리 있었습니다. 힘에 의존하고 힘의 방식에만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노아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는 부분입니다. 이 시대에 코로나가 닥치고 또 어떤 시험이나 재앙이 닥치든 간에 인간의 진정한 승리의 길은 노아가 살았던 믿음과 방식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바르게 이해하고 수용한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맺음>

히 11:7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심판의 파도 가운데서도 우리는 노아와 같이 은혜를 입은 의인으로서 살아가는 복된 백성들 되어서 주님의 새창조의 역사에 기여하는 일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생각해 봅시다>

1. 노아가 당시 심판에 가까운 세상에서 살면서 삶의 일순위로 삼은 것은 무엇인지 말씀해 보세요.
2. 나는 팬더믹 상황의 이 시대를 어떤 성경적 눈으로 읽고 있습니까? 지금 내게 가장 필요한 영적, 인격적 자질은 무엇입니까?